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경혜**, 윤성은***

본 연구는 친족관계의 전반적 현황과 양계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친족관계 영역에서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남녀 1755명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거주집성, 접촉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세대관계의 구조적 차원에서 양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양계화 정도의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즉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족의 지원망 구성 및 활용에 있어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계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인 모습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의 협력네트워크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은 부계친족 및 모계친족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라기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부계중심적으로 규범화된 친족유대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영역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핵심단어: 친족관계, 양계화, 세대관계,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친족관계는 부계중심적이며 친족과의 교류는 자발적 성격보다 의무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부계친족망에 편입되어

* 이 연구는 2003년도 여성부 연구용역 결과물인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중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일부 수행했던 연구 내용임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친족교류의 상당부분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야했던 여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라고 표현되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최근 3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친족관계가 급속히 변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친족범위가 축소되고 친족간의 접촉빈도가 감소되는 등 친족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친족활동의 내용 및 친족관계의 성격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친족관계의 변화양상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부계적 친족관계가 형식적이며 세력집단으로서 기능했다면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집단으로 변화하면서(조정문, 1997), 형식과 의무보다는 현실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류가 맺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성, 자발성의 증가는 친족관계에서의 양계화 현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족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들의 기초가 되는 기존연구들은 주로 도시 중산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연구들로서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으로, 표본의 대표성은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또한 가족행동에 있어 다른 계층, 농촌에 비하여 비교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도시, 중산층,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계화 정도가 부풀려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농촌지역 및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면서 여성의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남성을 함께 조사하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누차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양계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가시화된 것으로 지적됨(최재별 외, 2003)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1980년대에 수행된 것들로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속도를 고려하건데 현재 한국가족의 친족관계를 이해하는데 적당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한국친족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축으로 하는 세대관계의 전반적 현황과 친족관계의 양계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

1) 여기서 양계화는 출계율로서의 양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부계와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의미함.

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성인자녀와 노부모로 이루어진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양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거주근접성, 접촉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양계화 정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가족의 지원망 구성 및 활용에 있어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계성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친족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 이미 원친과의 친족의식이 약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친족범위가 축소되는 가운데, 친족의 의례적 기능 등은 여전히 상당 정도 유지·존속되면서, 생활가운데서의 친족의 상호작용은 부계가 약화되고 처가와 유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이효재, 1971; 최재석, 1975; 이동원, 1985). 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에 있어 제도상 부계의 연속성이 존재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적 특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1980년대에 서울시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이광자, 1988; 이동원, 1981; 최재석, 1987; 한남제, 1988)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친정과의 유대가 빈번해졌다는 측면에서 양계화 경향을 지적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친정과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 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유대, 일손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가족의례나 경제적 도움은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류의 내용상, 시가에는 도움을 주고 처가로부터는 도움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표면으로는 양계적 경향이 관찰되나 그 근저에는 여전히 부계적 특성을 강하게 가짐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상호작용에 있어 부계친족과 모계친족을 차별하지 않는 서구의 대칭적 양계제와 구별되는 양상이었다. 이광자(1988)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모계친족과의 빈번한 접촉을 친족관계의 양계화 내지는 모계화 징후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며, 친족과의 접촉 및 유대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에 행해진 연구들(조정문, 1997; 김선영, 2002; 김순옥·김수진, 2002)에 의하면, 양계화 추세가 1980년대에 비하여 더욱 진전된 것으로 지적된다. 모계친족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나 접촉빈도가 증가하였고, 상호지원 교류도 1980년대에 비교하여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접촉이나 상호지원의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서구가족의 양계적 성격과는 구별되는 부계중심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양가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비슷하나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아내 쪽 부모보다 남편 쪽 부모가 훨씬 높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도움의 성격도 부계와 모계 간에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 도움은 남편 쪽 부모로부터, 정서적 도움이나 일손 도움은 아내 쪽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영, 2002). 이러한 양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를 더 이상 남성중심의 친족관계에 기초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친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친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로는 출생순위 등 부계친족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 남성의 특성과 함께, 학력, 소득, 취업여부 등 여성의 자원적 특성, 그리고 도시/농촌의 지역적 특성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이 지적된다. 그런데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요인들과 친족관계와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남이거나 외아들인 경우 차남 이하인 경우보다 친가지향적인 기능적 유대와 의례적 유대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성희, 1992; 박시라, 1999).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직계가족 성격을 가진 한국가족의 특성상 장남의 위치가 특별하다는 점에서 남편의 출생순위는 아직도 친족관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그런가하면 남편의 출생순위는 친족관계의 방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조정문, 1997),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전통적인 친족관계가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도시 출신이 친정 쪽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이동원, 1985), 소득이 높은 층에서 양가와와의 관계가 모두 활발하고 실제적 협력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박시라, 1999; 이효재, 1971; 한남제, 1988). 한편, 시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양계화 정도가 낮고 시가와 친정이 비슷하거나 친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은 경우 양계적 성격이 강하였다(조정문, 1997).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정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하며 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 감소하는 반면 친정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 증가(이동원, 1984; 한남제, 1988)한다.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친정과의 유대가 높게 나타나는데(이원주,

1989; 이광자 1988), 여성이 취업을 하면 시집에 비해 육아나 가사를 부탁하기 쉬운 친정 근처에서 사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최셋별 외, 2003)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지리적 근접성(이호재, 1971; 박시라, 1999)이 높을수록 자주 접촉하고 기능적, 친목적, 의례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시라, 1999). 그러나 시가와 의례적 관계와 지리적 근접성은 관계가 별로 없다는 연구결과(김경원, 1989)도 있는데 이는 의무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가와 의례적 교류는 거주거리가 멀어도 일정 정도 유대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 다. 조정문(1997)의 연구에서도, 친정과 가까이 사는 경우라도 시가, 부계친족과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또한 부계중심의 친족관계라는 문화적 전통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몇 가지 주요한 제한점 때문에 현재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의 현 주소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족관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부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가구의 10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모집단으로 하였고, 총 표본수는 3,500가구의 10세 이상 가구 구성원 9,109명이다. 표본추출은 인구분포에 따라 등 간격으로 350개의 실사 지점을 선정하고 각 지점 당 10가구씩 무작위로 추출하는 다단계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은 가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구 대표자’로 선정하고 가구 대표자를 중심으로 ‘가구 대표 배우자’, ‘청소년 가구원’, ‘노인 가구원’, ‘미혼 가구원’으로 나누어 각각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조사전문기관의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는 ‘개별 대면 면접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표본 중 배우자가 있으면서 한명 이상의 본인부모와 한명 이상의 배우자 부모가 생존해 있는 1755명의 가

구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접촉빈도와 같이 부부 각각의 행동을 다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대표자의 배우자도 함께 분석에 사용하여 부부 및 가족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동거여부, 거주근접성, 접촉빈도로 살펴보았으며, 접촉빈도는 전화접촉빈도와 대면접촉빈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는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각각의 영역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적 지원은 용돈, 생활비 등의 도움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의논이나 꾸밈 상대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지원은 가사일이나 집 봐주기, 간병 등 생활상의 도움을 의미한다. 양계화의 정도와 내용은 이상의 세대관계의 특성들과 가족 협력 네트워크의 교류양상을 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모 및 친족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의 현황과 특성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남편 연령은 20대가 12.3%, 30대가 46.2%, 40대가 32.9%, 50세 이상인 경우가 8.5%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형제순위는 장남이 30.3%, 지차남이 69.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아내의 학력수준은 중졸이하가 10.3%, 고졸이 59.1%, 전문대졸이상이 30.7%였다. 아내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취업한 경우가 41.0%,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59.0%였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상류층이 5.3%, 중류층이 44.0%, 하류층이 50.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거주지역은 도시가 87.6%로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인 경우는 12.4%였다.

<표 1> 조사대상자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 = 1755)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남편의 연령대	20대	216(12.3)	아내의 취업여부	취업	720(41.0)
	30대	811(46.2)		미취업	1035(59.0)
	40대	578(32.9)	주관적 계층	상	92(5.3)
	50세 이상	150(8.5)		중	771(44.0)
남편의 형제순위	장남	523(30.3)	하	888(50.7)	
	지차남	1203(69.7)	거주지역	도시	1537(87.6)
아내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180(10.3)		농촌	218(12.4)
	고졸	1037(59.1)			
	초대졸이상	538(30.7)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IV. 연구결과

1. 세대관계

1) 부모와의 동거여부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남편부모 및 아내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표 2-1), 남편부모나 아내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1.6%, 1.7%에 불과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유형은 양가의 부모와 모두 따로 사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남편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아내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거주유형에서의 부계적 성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표 2-1〉 부모와의 동거여부(N=1755)

단위: 빈도(%)

구분	남편부모	아내부모
동거	204(11.6)	26(1.7)
비동거	1551(88.4)	1726(98.3)
계	1755(100.0)	1755(100.0)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남편의 출생순위, 아내의 학력, 가족의 거주지역에 따라 남편 부모와의 동거여부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 장남이 지차남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전히 장남들이 부모와의 동거 및 부양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남편 부모와의 동거하는 비율이 낮으며, 도시 거주자보다 농촌 거주자가 남편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내부모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아내부모와 동거하는 사례수가 워낙 작아(29사례) 특정한 경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표 2-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와의 동거여부(N = 1755)

단위: 빈도(%)

구 분	남편부모와 동거여부		아내부모와의 동거여부		계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남편의 연령대	20대	24(11.1)	192(88.9)	3(1.4)	213(98.6)	216(100.0)
	30대	79(9.7)	732(90.3)	11(1.4)	800(98.6)	811(100.0)
	40대	80(13.8)	498(86.2)	12(2.1)	566(97.9)	578(100.0)
	50세 이상	21(14.0)	129(86.0)	3(2.0)	147(98.0)	150(100.0)
		$\chi^2 = 6.44$		$\chi^2 = 1.28$		
남편의 형제순위	장남	85(16.3)	438(83.7)	7(1.3)	516(98.7)	523(100.0)
	지차남	113(9.4)	1090(90.6)	20(1.7)	1183(98.3)	1203(100.0)
		$\chi^2 = 16.89^{***}$		$\chi^2 = .25$		
아내의 학력수준	중졸이하	41(22.8)	139(77.2)	1(0.6)	179(99.4)	116(100.0)
	고졸	124(12.0)	913(88.0)	16(1.5)	1021(98.5)	755(100.0)
	초대졸이상	39(7.2)	499(92.8)	12(2.2)	526(97.8)	875(100.0)
		$\chi^2 = 31.94^{***}$		$\chi^2 = 2.52$		
아내의 취업여부	취업	90(12.5)	630(87.5)	14(1.9)	706(98.1)	720(100.0)
	미취업	114(11.0)	921(88.4)	15(1.4)	1020(98.6)	1035(100.0)
		$\chi^2 = .91$		$\chi^2 = .64$		
주관적 계층	상	12(13.0)	80(87.0)	2(2.2)	90(97.8)	92(100.0)
	중	75(9.7)	696(90.3)	16(2.1)	755(97.9)	771(100.0)
	하	117(13.2)	771(86.8)	11(1.2)	877(98.8)	888(100.0)
		$\chi^2 = 4.95$		$\chi^2 = 1.93$		
거주지역	도시	143(9.3)	1394(90.7)	22(1.4)	1515(98.6)	1537(100.0)
	농촌	61(28.0)	157(72.0)	7(3.2)	211(96.8)	218(100.0)
		$\chi^2 = 64.84^{***}$		$\chi^2 = 3.72$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부모와의 거주근접성

다음으로 양가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응답자 1527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거주근접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남편부모와의 거주근접성을 보면(표 3-1), 응답자의 34.7%가 남편부모와 서로 다른 시/군에 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같은

시/군에 27.2%, 다른 광역시나 도에 22.1%, 같은 동네 및 주변에 9.1%, 같은 읍/면/동에 6.3%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부모와의 거주근접성은 응답자의 36.8%가 서로 다른 시/군에 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른 광역시나 도에 24.4%, 같은 시/군에 24.4%, 같은 동네 및 주변에 8.3%, 같은 읍/면/동에 5.7%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40% 정도는 양가 부모와 같은 동네나 같은 시의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주유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는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핵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상호교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근접성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남편부모와 아내부모와의 거주근접성 분포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거주유형에서는 아내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해 남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계적 경향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 거주근접성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양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부모와의 거주 근접성(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주변, 같은동네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	다른 시/군	다른 광역시/도	다른 나라	계
남편부모	139(9.1)	96(6.3)	414(27.2)	527(34.7)	336(22.1)	8(0.5)	1520(100.0)
아내부모	126(8.3)	86(5.7)	371(24.4)	560(36.8)	372(24.4)	7(0.5)	1522(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다음은 남편부모와의 거주근접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표 3-2).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남편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고, 아내의 학력이 낮은 경우 남편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약간 더 높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남편부모와 거주근접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남편 부모와의 거주근접성(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주변	같은	같은	다른	다른	다른	계
		같은동네	읍/면/동	시/군	시/군	광역시/도	나라	
남편의 연령대	20대	27(14.1)	13(6.8)	56(29.3)	52(27.2)	43(22.5)	.	191(100.0)
	30대	65(9.0)	52(7.2)	202(28.1)	251(34.9)	147(20.4)	3(0.4)	720(100.0)
	40대	41(8.5)	28(5.8)	125(25.8)	179(36.9)	109(22.5)	3(0.6)	485(100.0)
	50세 이상	6(4.8)	3(2.4)	31(25.0)	45(36.3)	37(29.8)	2(1.6)	124(100.0)
		$\chi^2 = 25.50^*$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52(12.1)	28(6.5)	108(25.2)	137(32.0)	101(23.6)	2(0.5)	428(100.0)
	지차남	86(8.0)	68(6.3)	295(27.5)	386(36.0)	230(21.5)	6(0.6)	1071(100.0)
	$\chi^2 = 6.97$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18(13.2)	12(8.8)	38(27.9)	44(32.4)	22(16.2)	2(1.5)	89(100.0)
	고졸	71(7.9)	66(7.4)	234(26.1)	337(37.6)	185(20.6)	3(0.3)	646(100.0)
	초대졸이상	50(10.2)	18(3.7)	142(29.1)	146(29.9)	129(26.4)	3(0.6)	777(100.0)
		$\chi^2 = 29.69^{**}$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65(10.6)	44(7.2)	169(27.5)	211(34.4)	123(20.0)	2(0.3)	614(100.0)
	미취업	74(8.2)	52(5.7)	245(27.0)	316(34.9)	213(23.5)	6(0.7)	906(100.0)
	$\chi^2 = 6.37$							
주관적 계층	상	5(6.3)	3(3.8)	17(21.5)	31(39.2)	23(29.1)		79(100.0)
	중	63(9.3)	37(5.5)	184(27.2)	234(34.6)	155(22.9)	4(0.6)	677(100.0)
	하	71(9.3)	55(7.2)	212(27.9)	261(34.3)	157(20.7)	4(0.5)	760(100.0)
		$\chi^2 = 8.04$						
거주 지역	도시	122(8.9)	61(4.5)	376(27.5)	487(35.6)	317(23.2)	6(0.4)	1369(100.0)
	농촌	17(11.3)	35(23.2)	38(25.2)	40(26.5)	19(12.6)	2(1.3)	151(100.0)
	$\chi^2 = 88.71^{***}$							

* $p < .05$, ** $p < .01$,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아내부모와의 거주근접성(표 3-3)은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과 취업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아내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아내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내의 부모와의 가까이 거주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 아내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남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벗어나 양계화된 친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원적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규범적 생활양식을 덜 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여성의 자원은 한국가족의 양계적인 친족관계로의 변화에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내부모와의 거주근접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취업한 경우 전통적

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었던 가사나 육아에 필요한 도움을 친정으로부터 쉽게 제공받기 위해 거주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내 부모와의 거주근접성 분포에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한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면 남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이 남편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내 부모와의 거주근접성(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주변, 같은동네	같은 구/읍/면	같은 시/군	다른 시/군	다른 광역시/도	다른 나라	계	
남편의 연령대	20대	18(9.4)	17(8.9)	50(26.2)	68(35.6)	37(19.4)	1(0.5)	191(100.0)
	30대	68(9.5)	42(5.9)	195(27.2)	235(32.8)	173(24.1)	4(0.6)	717(100.0)
	40대	38(7.8)	25(5.1)	106(21.7)	197(40.4)	120(24.6)	2(0.4)	488(100.0)
	50세 이상	2(1.6)	2(1.6)	20(15.9)	60(47.6)	42(33.3)	.	126(100.0)
$\chi^2 = 39.63^{**}$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40(9.3)	29(6.7)	92(21.3)	150(34.8)	117(27.1)	3(0.7)	431(100.0)
	차남이하	84(7.9)	56(5.2)	271(25.3)	403(37.7)	252(23.6)	4(0.4)	1070(100.0)
$\chi^2 = 6.97$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6(4.3)	13(9.4)	26(18.8)	57(41.3)	35(25.4)	1(0.7)	89(100.0)
	고졸	73(8.1)	54(6.0)	199(22.2)	368(41.0)	198(22.1)	5(0.6)	646(100.0)
	초대졸이상	47(9.7)	19(3.9)	146(30.0)	135(27.7)	139(28.5)	1(0.2)	779(100.0)
$\chi^2 = 42.37^{***}$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69(11.2)	42(6.8)	149(24.2)	201(32.6)	154(25.0)	1(0.2)	616(100.0)
	미취업	57(6.3)	44(4.9)	222(24.5)	359(39.6)	218(24.1)	6(0.7)	906(100.0)
$\chi^2 = 20.19^{**}$								
주관적 계층	상	11(13.9)	4(5.1)	11(13.9)	28(35.4)	25(31.6)	.	79(100.0)
	중	54(7.9)	35(5.1)	162(23.8)	270(39.7)	157(23.1)	2(0.3)	680(100.0)
	하	61(8.0)	46(6.1)	198(26.1)	260(34.3)	189(24.9)	5(0.7)	759(100.0)
$\chi^2 = 14.89$								
거주 지역	도시	116(8.4)	61(4.4)	354(25.8)	496(36.1)	339(24.7)	7(0.5)	1373(100.0)
	농촌	10(6.7)	25(16.8)	17(11.4)	64(43.0)	33(22.1)	.	149(100.0)
$\chi^2 = 50.90^{***}$								

** p < .01,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3) 부모와의 접촉빈도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 각각의 세대간 접촉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화통화 빈도를 살펴보면(표 4-1), 남편의 경우 본인 부모와의 전화통화는 한달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두번(38.1%), 일년에 몇 번(12.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달에 한두 번 이상 부모와 전화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장인·장모와 전화 통화하는 빈도의 경우, 본인부모와의 전화통화와 유사하게 한달에 한두 번 전화통화 한다는 응답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본인부모의 접촉빈도와 달리,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닌, 일년에 몇 번 통화한다는 응답(27.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18.4%)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본인부모와 전화통화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았으며(43.5%), 다음으로 한달에 한두 번(37.8%), 거의 매일(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의 전화통화 빈도는 한달에 한두 번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두번(38.4%), 일년에 몇번(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가부모와의 전화통화 빈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우선 전반적으로 접촉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약 84%가 본인의 부모와 한달에 한번이상, 그리고 65%가 장인장모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90% 정도가 본인의 부모 및 시부모와 한달에 한두 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부모와의 접촉빈도에 비하여 처가부모와의 접촉빈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남녀 모두 양가부모와 비교적 잦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은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 한달에 한두번 이상 전화통화하는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본인부모 90.9%, 시부모 86.8%) 남성이 한달에 한두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비율은 본인부모 84.3%, 장인장모 64.9%로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처가부모와의 전화통화빈도가 낮다는 사실은,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번’, 잦은 통화를 하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비율은 본인부모의 경우 42.8%인데 비해 장인·장모의 경우 20.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친족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계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김규원, 1995)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1〉 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

단위: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계
남성	본인부모	71(4.7)	573(38.1)	624(41.5)	192(12.8)	43(2.9)	1503(100.0)
	장인·장모	27(1.8)	278(18.4)	675(44.7)	414(27.4)	115(7.6)	1509(100.0)
여성	본인부모	165(9.6)	750(43.5)	652(37.8)	143(8.3)	16(0.9)	1726(100.0)
	시부모	94(6.0)	598(38.4)	660(42.4)	165(10.6)	40(2.6)	1557(100.0)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전화접촉 빈도를 살펴보았다. 남편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는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표 4-2).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부모와 전화접촉하는 빈도가 높아서 ‘거의 매일’ 전화하거나 ‘일주일에 한두번’ 전화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년에 몇번’ 전화하는 의례적 전화접촉의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내의 학력이 높은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잦은 전화통화를 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전화접촉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내부모와의 전화접촉 빈도는(표 4-3)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과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아내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가 높고, 아내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내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가 높았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와 근소한 차이지만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내부모와 ‘거의 매일’ 통화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는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아내부모와의 접촉빈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내부모와의 전화접촉정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남편부모와의 전화접촉정도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빈번하였다. 전화접촉빈도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좀 더 부계적 성향이 나타내는 반면,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양계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남편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계	
남편의 연령대	20대	16(8.4)	101(52.9)	67(35.1)	3(1.6)	4(2.1)	191(100.0)
	30대	46(6.4)	295(40.9)	295(40.9)	67(9.3)	19(2.6)	722(100.0)
	40대	24(4.9)	171(35.0)	220(45.1)	62(12.7)	11(2.3)	488(100.0)
	50세 이상	6(4.8)	32(25.4)	55(43.7)	29(23.0)	4(3.2)	126(100.0)
$\chi^2 = 61.65^{***}$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33(7.6)	180(41.7)	168(38.9)	41(9.5)	10(2.3)	432(100.0)
	차남이하	58(5.4)	411(38.3)	459(42.7)	118(11.0)	28(2.6)	1074(100.0)
$\chi^2 = 5.32$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12(8.7)	45(32.6)	56(40.6)	19(13.8)	6(4.3)	89(100.0)
	고졸	56(6.2)	333(37.0)	392(43.6)	93(10.3)	26(2.9)	648(100.0)
	초대졸이상	24(4.9)	221(45.2)	189(38.7)	49(10.0)	6(1.2)	782(100.0)
$\chi^2 = 18.85^*$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47(7.6)	235(38.1)	261(42.3)	55(8.9)	19(3.1)	617(100.0)
	미취업	45(4.9)	364(40.0)	376(41.3)	106(11.6)	19(2.1)	910(100.0)
$\chi^2 = 8.85$							
주관적 계층	상	6(7.6)	35(44.3)	32(40.5)	6(7.6)		79(100.0)
	중	34(5.0)	271(39.8)	293(43.0)	73(10.7)	10(1.5)	681(100.0)
	하	52(6.8)	290(38.0)	312(40.9)	82(10.7)	27(3.5)	763(100.0)
$\chi^2 = 12.67$							
거주 지역	도시	75(5.5)	533(38.8)	591(43.0)	143(10.4)	33(2.4)	1375(100.0)
	농촌	17(11.2)	66(43.4)	46(30.3)	18(11.8)	5(3.3)	152(100.0)
$\chi^2 = 14.23^{**}$							

* $p < .05$, ** $p < .01$,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4-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내부모와의 전화접촉빈도(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남편의 연령대	20대	28(14.7)	104(54.5)	52(27.2)	6(3.1)	1(0.5)	191(100.0)
	30대	84(11.6)	343(47.5)	240(33.2)	48(6.6)	7(1.0)	722(100.0)
	40대	25(5.1)	182(37.3)	215(44.1)	60(12.3)	6(1.2)	488(100.0)
	50세 이상	6(4.8)	32(25.4)	63(50.0)	21(16.7)	4(3.2)	126(100.0)
$\chi^2 = 95.03^{***}$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35(8.1)	198(45.8)	158(36.6)	35(8.1)	6(1.4)	432(100.0)
	차남이하	105(9.8)	454(42.3)	403(37.5)	100(9.3)	12(1.1)	1074(100.0)
	$\chi^2 = 2.60$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8(5.8)	39(28.3)	69(50.0)	18(13.0)	4(2.9)	89(100.0)
	고졸	73(8.1)	370(41.1)	366(40.7)	81(9.0)	10(1.1)	648(100.0)
	초대졸이상	62(12.7)	252(51.5)	135(27.6)	36(7.4)	4(0.8)	782(100.0)
	$\chi^2 = 54.02^{***}$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70(11.3)	252(40.8)	225(36.5)	58(9.4)	12(1.9)	617(100.0)
	미취업	73(8.0)	409(44.9)	345(37.9)	77(8.5)	6(0.7)	910(100.0)
	$\chi^2 = 11.49^*$						
주관적 계층	상	6(7.6)	40(50.6)	26(32.9)	7(8.9)		79(100.0)
	중	68(10.0)	294(43.2)	257(37.7)	58(8.5)	4(0.6)	681(100.0)
	하	68(8.9)	325(42.6)	286(37.5)	70(9.2)	14(1.8)	763(100.0)
	$\chi^2 = 8.13$						
거주 지역	도시	134(9.7)	597(43.4)	512(37.2)	117(8.5)	15(1.1)	1375(100.0)
	농촌	9(5.9)	64(42.1)	58(38.2)	18(11.8)	3(2.0)	152(100.0)
	$\chi^2 = 4.85$						

* $p < .05$,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다음으로 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를 살펴보면(표 4-4), 남편들이 본인부모를 만나는 빈도는 일년에 몇번 만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1.8%), 다음으로 한달에 한두번(38.6%), 일주일에 한두번(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이 장인·장모와 만나는 빈도도 일년에 몇번이 가장 많았으며(55.3%), 다음으로 한달에 한두 번(31.7%), 일주일에 한두 번(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부모와 만나는 빈도는 일년에 몇 번이 가장 많았으며(43.8%), 한달에 한두 번(38.6%), 일주일에 한두 번(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들이 시부모와 만나는 빈도는 한달에 한두 번과 일년에 몇 번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여성응답자의 약 41%가 일년에 몇 번 정도 시부모를 만났으며 40% 정도는 한달에 한두 번 시부모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13.2%), 거의 매일(3.7%), 거의 만나지 않음(1.6%)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남녀의 15% 이상은 양가 부모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잦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약 40% 정도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양가 부모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활발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사대상 남녀의 40% 이상은 부모와 ‘일년에 몇 번’ 정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절이나 생일, 제사과 같은 가족 의례시에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며, 일상에서의 접촉은 부족한 경우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앞서 부모와의 거주근접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서로 다른 시, 도 등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인부모와 배우자부모를 만나는 빈도에 있어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모보다 시부모와의 만남빈도가 다소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모에 비해 장인장모를 만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화통화 빈도와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4-4〉 부모와의 대면접촉빈도

단위: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계
남성	본인부모	58(3.9)	212(14.1)	580(38.6)	628(41.8)	25(1.7)	1503(100.0)
	장인·장모	26(1.7)	134(8.9)	479(31.7)	834(55.3)	36(2.4)	1509(100.0)
여성	본인부모	48(2.8)	235(13.6)	666(38.6)	756(43.8)	20(1.2)	1725(100.0)
	시부모	58(3.7)	206(13.2)	625(40.1)	643(41.3)	25(1.6)	1557(100.0)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남편부모와의 대면접촉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연령, 아내의 학력,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은 집단일수록 남편부모와의 만남이 빈번하였고, 아내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남편부모와 거의 매일의 잦은 접촉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접촉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남편부모와의 만남이 더 빈번한 것으로 관찰된다.

〈표 4-5〉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남편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계	
남편의 연령대	20대	10(5.2)	39(20.4)	89(46.6)	52(27.2)	1(0.5)	191(100.0)
	30대	29(4.0)	104(14.4)	302(41.8)	274(38.0)	13(1.8)	722(100.0)
	40대	13(2.7)	54(11.1)	178(36.5)	236(48.4)	7(1.4)	488(100.0)
	50세 이상	3(2.4)	7(5.6)	37(29.4)	75(59.5)	4(3.2)	126(100.0)
$\chi^2 = 56.96^{***}$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20(4.6)	63(14.6)	172(39.8)	167(38.7)	10(2.3)	432(100.0)
	차남이하	35(3.3)	138(12.8)	423(39.4)	463(43.1)	15(1.4)	1074(100.0)
$\chi^2 = 5.32$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8(5.8)	26(18.8)	32(23.2)	70(50.7)	2(1.4)	89(100.0)
	고졸	38(4.2)	103(11.4)	351(39.0)	390(43.3)	18(2.0)	648(100.0)
	초대졸이상	9(1.8)	75(15.3)	223(45.6)	177(36.2)	5(1.0)	782(100.0)
$\chi^2 = 36.61^{***}$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28(4.5)	82(13.3)	249(40.4)	245(39.7)	13(2.1)	617(100.0)
	미취업	27(3.0)	122(13.4)	357(39.2)	392(43.1)	12(1.3)	910(100.0)
$\chi^2 = 5.04$							
주관적 계층	상	3(3.8)	12(15.2)	29(36.7)	35(44.3)		79(100.0)
	중	18(2.6)	91(13.4)	286(42.0)	278(40.8)	8(1.2)	681(100.0)
	하	34(4.5)	101(13.2)	288(37.7)	323(42.3)	17(2.2)	763(100.0)
$\chi^2 = 9.43$							
거주 지역	도시	35(2.5)	172(12.5)	551(40.1)	596(43.3)	21(1.5)	1375(100.0)
	농촌	20(13.2)	32(21.1)	55(36.2)	41(27.0)	4(2.6)	152(100.0)
$\chi^2 = 60.61^{***}$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아내부모와의 만남빈도는 연령, 학력,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내부모와의 만남이 더 빈번하

였고,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부모와의 만남이 약간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내부모와의 만남이 약간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사일 등에 친정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겠다.

〈표 4-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내 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N = 1527)

단위: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년에 몇번	거의 하지않음	계	
남편의 연령대	20대	10(5.2)	37(19.4)	92(48.2)	51(26.7)	1(0.5)	191(100.0)
	30대	28(3.9)	121(16.8)	292(40.4)	275(38.1)	6(0.8)	722(100.0)
	40대	7(1.4)	51(10.5)	165(33.8)	260(53.3)	5(1.0)	488(100.0)
	50세 이상	1(0.8)	5(4.0)	36(28.6)	80(63.5)	4(3.2)	126(100.0)
$\chi^2 = 89.42^{***}$							
남편의 형제 순위	장남	9(2.1)	57(13.2)	176(40.7)	186(43.1)	4(0.9)	432(100.0)
	차남이하	35(3.3)	154(14.3)	399(37.2)	475(44.2)	11(1.0)	1074(100.0)
$\chi^2 = 2.91$							
아내의 학력 수준	중졸이하	2(1.4)	13(9.4)	38(27.5)	81(58.7)	4(2.9)	89(100.0)
	고졸	28(3.1)	108(12.0)	334(37.1)	418(46.4)	12(1.3)	648(100.0)
	초대졸이상	16(3.3)	93(19.0)	213(43.6)	167(34.2)	.	782(100.0)
$\chi^2 = 51.94^{***}$							
아내의 취업 여부	취업	31(5.0)	85(13.8)	230(37.3)	265(42.9)	6(1.0)	617(100.0)
	미취업	15(1.6)	129(14.2)	355(39.0)	401(44.1)	10(1.1)	910(100.0)
$\chi^2 = 14.40^{**}$							
주관적 계층	상	3(3.8)	10(12.7)	31(39.2)	35(44.3)	.	79(100.0)
	중	24(3.5)	90(13.2)	277(40.7)	286(42.0)	4(0.6)	681(100.0)
	하	19(2.5)	114(14.9)	274(35.9)	344(45.1)	12(1.6)	763(100.0)
$\chi^2 = 9.47$							
거주 지역	도시	39(2.8)	187(13.6)	519(37.7)	616(44.8)	14(1.0)	1375(100.0)
	농촌	7(4.6)	27(17.8)	66(43.4)	50(32.9)	2(1.3)	152(100.0)
$\chi^2 = 8.83$							

** $p < .01$, *** $p < .001$

주: 결측치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부모와 전화접촉과 대면접촉 모두 빈도가 높으며 남편부모와 아내부모 양측과의 접촉빈도가 모두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아내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특히 아내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내의 교육수준은 양계적인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남편부모와의 전화접촉과 대면접촉 모두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거주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남편의 부모와 거주근접성이 높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보다 부계중심적인 전통적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

다음은 양계화 정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지원망 구성 및 활용에 있어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계성 정도를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양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지원 교환 양상을 살펴보면(표 7-1),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은 남편 부모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내 부모, 자녀, 아내의 형제, 남편의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은 아내의 부모가 1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부모, 아내의 형제, 자녀, 남편의 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교환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지원 교환에서 양가 부모의 차이이다. 경제적 지원 교환에 있어 남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이 가장 높으며(45.5%) 아내의 부모에 대한 지원은 그 1/3 수준(14.8%)이었다. 반면 조사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남편부모가 11.1%에 그친 것에 비해 아내부모는 18.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가족의 양계화 경향의 구체적 내용이 아내의 원가족/부모로부터의 지원 증가의 형태를 가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자의 형제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내의 형제의 경우 조사대상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3.6%인데 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주는 비율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가족의 경제적 지원 제공 및 수혜 양상(N=1755)

	제 공	빈도(%)	수 혜	빈도(%)
경 제 적 지 원	남편부모	799(45.5)	남편부모	194(11.1)
	아내부모	260(14.8)	아내부모	318(18.1)
	남편의 형제	35(2.0)	남편의 형제	34(1.9)
	남편의 남자형제	19(1.1)	남편의 남자형제	21(1.2)
	남편의 여자형제	16(0.9)	남편의 여자형제	13(0.7)
	아내의 형제	63(3.6)	아내의 형제	144(8.2)
	아내의 남자형제	25(1.4)	아내의 남자형제	28(1.6)
	아내의 여자형제	38(2.2)	아내의 여자형제	116(6.6)
	자녀	241(13.7)	자녀	57(3.4)
	장남	68(3.9)	장남	17(1.0)
	장남이외의 아들	10(0.6)	장남이외의 아들	4(0.2)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32(1.8)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3(0.2)
	장녀	35(2.0)	장녀	14(0.8)
	장녀이외의 딸	4(0.2)	장녀이외의 딸	3(0.2)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14(0.8)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1(0.1)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78(4.4)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15(0.9)
	친구나 직장동료	3(0.2)	친구나 직장동료	14(0.8)
	배우자	2(0.1)	배우자	34(1.9)
해당없음	352(20.1)	해당없음	960(54.7)	

한편 형제와의 지원 교환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지원의 제공과 수혜 모두에서 남편의 형제보다 아내의 형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아내의 남자형제보다는 여자형제와의 경제적 지원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양상은 형제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교환은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 높기 때문에, 형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 교환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자들이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 중 자녀의 출생순위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남, 장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골고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남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7-2> 가족의 정서적 지원 제공 및 수혜 양상(N = 1755)

	제 공	%	수 혜	%
정 서 적 지 원	남편부모	129(7.4)	남편부모	65(3.7)
	아내부모	211(12.0)	아내부모	212(12.1)
	남편의 형제	74(4.2)	남편의 형제	53(3.0)
	남편의 남자형제	23(1.3)	남편의 남자형제	21(1.2)
	남편의 여자형제	51(2.9)	남편의 여자형제	32(1.8)
	아내의 형제	387(22.1)	아내의 형제	396(22.6)
	아내의 남자형제	24(1.4)	아내의 남자형제	19(1.1)
	아내의 여자형제	363(20.7)	아내의 여자형제	377(21.5)
	자녀	123(7.0)	자녀	74(4.2)
	장남	22(1.3)	장남	11(0.6)
	장남이외의 아들	4(0.2)	장남이외의 아들	2(0.1)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8(0.5)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2(0.1)
	장녀	44(2.5)	장녀	31(1.8)
	장녀이외의 딸	13(0.7)	장녀이외의 딸	8(0.5)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7(0.4)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9(0.5)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25(1.4)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11(0.6)
친구나 직장동료	656(37.4)	친구나 직장동료	731(41.7)	
배우자	29(1.7)	배우자	44(2.5)	
해당없음	146(8.3)	해당없음	180(10.3)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정서적 지원 제공과 수혜 양상을 살펴보면(표 7-2), 조사대상자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은 친구나 직장동료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내의 형제, 아내의 부모, 남편의 부모, 자녀, 남편의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정서적 지원을 받는 대상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내의 형제, 아내의 부모, 자녀, 남편부모, 남편의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적 지원 교환이 주로 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정서적 지원 교환에서는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교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에 있어 아내의 형제가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특히 아내의 여자형제가 중요한 상호교환대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지원 교환에서 특히 아내의 여자형제와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 '관계'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친족 유지기능(kin-keeping)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 간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정서적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서적 지원 제공과 수혜에 있어 남편

부모에 비해 아내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표 7-3〉 가족의 도구적 지원 제공 및 수혜 양상(N=1755)

	제 공	%	수 혜	%
도 구 적 지 원	남편부모	362(20.6)	남편부모	213(12.1)
	아내부모	236(13.4)	아내부모	293(16.7)
	남편의 형제	38(2.2)	남편의 형제	40(2.3)
	남편의 남자형제	12(0.7)	남편의 남자형제	11(0.6)
	남편의 여자형제	26(1.5)	남편의 여자형제	29(1.7)
	아내의 형제	161(9.2)	아내의 형제	195(11.1)
	아내의 남자형제	12(0.7)	아내의 남자형제	10(0.6)
	아내의 여자형제	149(8.5)	아내의 여자형제	185(10.5)
	자녀	117(6.7)	자녀	130(7.3)
	장남	22(1.3)	장남	21(1.2)
	장남이외의 아들	4(0.2)	장남이외의 아들	4(0.2)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5(0.3)	장남을 포함한 모든 아들	6(0.3)
	장녀	32(1.8)	장녀	55(3.1)
	장녀이외의 딸	9(0.5)	장녀이외의 딸	11(0.6)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10(0.6)	장녀를 포함한 모든 딸들	8(0.5)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35(2.0)	아들 딸 전부에게 골고루	25(1.4)
	친구나 직장동료	85(4.8)	친구나 직장동료	134(7.6)
	배우자	14(0.8)	배우자	33(1.9)
	해당없음	742(42.3)	해당없음	717(40.9)

다음으로 도구적 지원 제공 및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표 7-3), 우선 조사대상자들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은 남편부모가 20.6%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아내부모, 아내의 형제, 자녀, 친구나 직장동료, 남편의 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상으로는 아내의 부모가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부모, 아내의 형제, 친구나 직장동료, 자녀, 남편의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사항 없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들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이 없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의 42.3%였으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도 없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40.9%를 차지하였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그 특

성상 지리적 근접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주이동이 잦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부모나 형제자매와 도구적 지원 교환이 발생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점은 양가 부모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은 남편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조사대상자들이 도구적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는 아내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형제와의 도구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교환과 마찬가지로 지원의 제공과 수혜 모두 남편의 형제에 비해 아내의 형제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여자형제와 도구적 지원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여부, 거주근접성, 접촉정도를 살펴봄으로서 세대관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친족관계의 양계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가족의 양계화를 지적하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규모의, 일반화 가능한 체계적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파악한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연구들은 도시 중산층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표본연구로 대부분 1980년대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다양한 계층 및 남성과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가족의 친족관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결과와 그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관계의 전반적 양상과 양계화 정도는 거주유형, 거주근접성 및 접촉빈도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거주유형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기보다는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사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며, 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 남편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거주유형에서의 부계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주근접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부모와 아내 부모와의 거주근접성 분포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정도의 양계화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한국가족이 노부모와 동거하기보다는 따로 살면서 상호교류하는 형태의

수정확대 가족적 유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연결시켜 볼 때, 이러한 거주근접성의 양계화 경향으로부터 관계적 측면의 양계화 경향을 유추할 수 있겠다. 관계적 측면의 양계화 경향은 전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세대 간 접촉빈도 조사 결과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부모와의 접촉빈도에 비하여 처가부모와의 접촉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시부모와 친정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있어 큰 패턴의 차이가 없이 비교적 잦은 접촉을 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양가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내 부모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거주유형에서도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더 탈부계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노부모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실제적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양계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의 변화가 결국 한국 친족관계의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에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세대간 전화접촉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핵가족 형태이지만 노부모가 고립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면접촉빈도는 전화접촉에 비하여 훨씬 낮아서, 부모와 일년에 몇 번 정도의 의례적 접촉만을 하는 비율도 40%정도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세대와의 대면접촉은 다양한 형태의 세대간 지원 교환과 상호작용의 통로이자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녀와의 대면접촉이 일년에 몇차례 명절이나 가족행사 등의 의례적인 경우에 국한되는 노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세대간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활용 현황에 있어 지원 영역별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 제공과 수혜는 부모자녀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서적 지원은 비친족원인 친구나 직장동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도구적 지원은 네트워크 활용율이 다른 성격의 지원에 비하여 극히 낮다는 특징이 관찰되었는데, 활용을 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가 1차 지원원이며 지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영역별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교환에 있어 남편부모에 대한 지원제공이 가장 높으며, 아내의 부모에 대한 지원은 그 1/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아내부모로부터의 지원제공이 남편부모로부터의 지원제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가족의 양계화 경향의 구체적 내용이 아내의 원가족/부모로부터

의 지원 증가의 형태를 가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부계친족과 모계친족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균형적, 대칭적 관계로서의 양계화라기보다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서구에서 관찰되는 친족관계의 양계화와 성격이 다르다. 친족관계의 비대칭성은 도구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도 관찰되는데, 자녀로부터의 지원제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남편의 부모인 반면, 가장 빈번하게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제공자는 아내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다음으로 아내의 여자형제와의 지원교환정도가 높았다. 반면 정서적 지원은 제공과 수혜에 있어서 모두, 남편부모보다는 아내부모와 더 빈번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처가/친정 부모와 가깝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제공을 포함하는 의무와 책임 영역에서는 본가/시부모를 우선시하는 경향(이재경, 1999)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 것이 현재 한국가족의 양계화의 큰 중심내용이며,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칭적 친족관계라는 의미의 양계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행해진 친족관계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급속하게 변화되어 권위적 성격이 약화되고 평등적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지위가 강화되었다는 논의가 무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대칭적 성격의 친족관계가 여전하다는 점은 주목할 결과라고 하겠다. 가족영역의 변화가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린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친족관계의 평등성 구현이라는 의미에서의 양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원은 비친족 의존도가 높은 반면 경제적, 도구적 지원은 친족의존도가 높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가족의 협력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교환되는 지원의 성격에 따라 활용되는 네트워크의 종류가 달라지는 ‘과업전문유형’의 양상을 띠면서도, 부모자녀관계의 1차적 의존도가 높은 ‘위계유형’이 함께 나타났다. 한편 세대간의 사회적 지원 교환에 관한 실증연구들(한경혜·홍진국, 2000; 한민아·한경혜, 2004)에 의하면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사회적 지원의 균형잡힌 교환 관계가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 기혼여성 취업의 증가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 가족을 둘러싼 인구학적 변화는 미래에는 한국가족이 종래 수행해 오던 지원망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혜경, 2000; 한경혜, 1998). 따라서 가족, 특히 부모자

녀 세대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네트워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의 마련과 현실화,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친족관계의 실제 담당자가 주로 여성이며, 현대 한국가족에서의 친족관계의 활용이 주로 여성의 필요에 기초한 선택적 양계화라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친족관계의 유지와 가족협력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은 여성을 위한 일이며, 그런 면에서 여성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곁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자면,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세대관계의 전반적 현황과 양계화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수준의 연구였다. 한국가족의 양계화 현황에 관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체계적 실증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술적 연구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현황과 양상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작업으로 분석적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족의 양계화 정도를 지수화하여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결정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나아가서 질적연구를 통하여 계층, 여성의 취업 및 남성의 출생순위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양계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들과 세대관계 양계화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는 작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선영(2002), “친족관계”, 이동원 외,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 김순옥, 김수진(2002),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대상 및 정도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 5: 195-215.
- 박시라(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 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4: 7-36.
- 이원주(1989),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문화연구원.
-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 최섯별·이명진·김재은(2003), “한국의 가족관련 사회정책성연구”, 《한국사회학》 37(5): 1-30.
- 최재석(1975), “도시 중류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고대인문논집》 20: 155-178.
-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 141-164.
-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46-58.
- ____·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한민아·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한남제(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 35-60.